

우주경쟁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이 저서는 2020년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이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3A2A01095177).

서울대학교 미래전략연구소 총서 3

우주경쟁의 세계정치

복합지정학의 시각

김상배 엮음

김상배·최정훈·김지이·알리나 쉬만스카·
한상현·이강규·이승주·안형준·유준구 지음

World Politics of the Competition for Space

The Perspective of Complex Geopolitics

한울
아카데미

차례

책머리에 8

제1장

우주공간의 복합지정학

김상배

전략·산업·규범의 3차원 경쟁

1. 서론	17
2. 우주전략 경쟁과 우주공간의 지정학	20
3. 우주산업 경쟁과 뉴스페이스의 부상	26
4. 우주규범 경쟁과 국제협력의 모색	33
5. 결론	41

제1부 주요국의 우주전략

제2장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우주정책

최정훈

‘뉴스페이스’와 ‘신(新)우주경쟁’에 따른 변화의 추세

1. 서론	48
2. 미국 우주정책 간사(簡史)	50
3.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정책	58
4. 기존 정책과의 연속성과 변화	71
5. 결론	87

제3장

중국의 우주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김지이

- | | |
|---------------------|-----|
| 1. 서론 | 94 |
| 2. 중국의 우주전략 및 제도 현황 | 98 |
| 3. 중국의 우주공간에 대한 인식 | 106 |
| 4. 결론 | 118 |

제4장

러시아의 우주전략

알리나 쉬만스카

우주프로그램의 핵심 과제와 우주 분야 국제협력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 | | |
|----------------------------|-----|
| 1. 서론 | 124 |
| 2. 우주력론 및 우주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 | 128 |
| 3. 러시아 우주프로그램의 핵심 과제 | 136 |
| 4. 국제협력의 주요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 144 |
| 5. 결론 | 155 |

제5장

자강불식의 유럽연합

한상현

우주공간의 전략·산업·규범을 중심으로

- | | |
|---------------------|-----|
| 1. 서론 | 164 |
| 2. 우주전략의 주요 정책 | 166 |
| 3. 우주산업과 기술 자율성 | 177 |
| 4. 유럽연합의 우주규범, ICoC | 190 |
| 5. 결론 | 198 |

제2부 우주경쟁의 세계정치

제6장

글로벌 우주 군사력 경쟁과 우주군 창설

이강규

- | | |
|----------------------|-----|
| 1. 서론 | 208 |
| 2. 글로벌 우주 군사력 경쟁의 이해 | 210 |
| 3. 우주강국들의 우주군 창설 유형 | 231 |
| 4. 결론 | 239 |

제7장

미중 복합 우주경쟁

이승주

경제-안보 연계의 다면성

1. 서론: 우주경쟁의 새로운 차원	245
2. 미국 우주전략의 변화와 우주산업	248
3. 중국의 우주 굴기	252
4. 미중 복합 우주경쟁	261
5. 결론	268

제8장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 경쟁과 국제협력

안형준

1. 서론	273
2. 위성항법시스템 국제 경쟁의 양상	276
3. 위성항법시스템 국제질서의 메커니즘	283
4. 결론	290

제9장

미러 우주 항법체계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알리나 쉬만스카

복합지정학의 시각

1. 서론	294
2. 미러 항법체계 경쟁의 이론	297
3. 복합지정학으로 보는 미러 항법체계 경쟁	302
4. 결론	317

제10장

우주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유준구

우주경쟁의 제도화

1. 서문	321
2. 우주경쟁에 관한 이론적 쟁점	323
3. 우주안보 국제규범 논의의 쟁점과 현안	330
4. 우주경쟁 제도화 과제	336
5. 결론	340

| 책머리에 |

이 책은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총서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총서 1 『4차 산업혁명과 신홍 군사안보: 미래전의 진화와 국제정치의 변환』(2020)과 총서 2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방위산업: 신홍권력 경쟁의 세계정치』(2021)에 이어 총서 3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총서 1이 4차 산업혁명이 무기체계와 전쟁 양식 및 세계정치의 변환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에 주력했다면, 총서 2는 미래의 전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방위산업을 파헤쳤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총서 3이 다룬 주제는 복합지정학의 시각에서 본 우주경쟁의 세계정치이다.

앞선 총서 두 권이 모두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와 연계된 전문가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던 데 반해, 이번 책은 다소 느슨한 형식으로 시작된 공부 모임의 산물이다. 이 책에 담긴 고민은, 2019년 여름 새로운 연구 주제로서 우주 이슈를 탐색하기 위해서 모였던 세미나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2년여의 다소 긴 여정을 거치며 생각을 다듬고 필진도 보강하면서 이제 단행본으로 묶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최근 미래전 연구 분야에서 우주 이슈가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데, 미래전연구센터 세미나 프로그램의 수강생들에게 의미 있는 ‘읽을거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총론인 제1장 “우주공간의 복합지정학: 전략·산업·규범의 3차원 경

쟁”(김상배)은 이 책의 기저에 깔린 문제의식을 소개했다. 최근 우주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냉전기의 우주공간을 다시 소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오늘날의 우주공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정보·데이터 환경을 배경으로 일상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주공간은 새롭게 구성되는 사회적 공간이며, 육·해·공·사이버공간과 연동된 ‘복합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우주공간에 참여하는 주체도 다변화하고 있다. 고도의 과학기술과 자본이 필요한 분야라는 우주개발의 특성상 과거에는 주로 몇몇 강대국들의 업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참여의 문턱이 낮아져서 여타 선진국들과 중진국들도 참여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민간기업들도 우주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변화하는 우주 복합공간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것이 초래할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우주공간에 대한 전략적·경제적·사회적 수요가 커지면서 우주공간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의 소지도 늘어났다. 복합공간으로 이해되고 있는 우주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국방전략을 모색할 과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주는 지정학적 프레임에서만 이해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 우주의 복합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과 더 나아가 이에 걸맞은 국제협력과 거버넌스, 그리고 관련 국가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복합지정학 complex geopolitics의 시각에서 우주경쟁의 세계정치를 탐구했다.

제1부 ‘주요국의 우주전략’은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의 우주전략과 그 기저에 깔린 인식과 제도 및 국제적 차원에서 우주외교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분석했다.

제2장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우주정책: ‘뉴스페이스’와 ‘신우주경쟁’에 따른 변화의 추세”(최정훈)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가전략적 목표를 위해 우주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미국의 우

주정책을 다루었다. 미국의 우주정책은 우주탐사뿐 아니라, 우주의 상업적 이용 촉진, 우주교통관리 및 우주상황인식, 우주군 설립 등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행보는 지구 대기권 내에서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미중경쟁의 양상이 지구 저궤도, 나아가 심우주까지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 상업적 우주 활용 역량이 폭발적으로 신장되면서 출현하고 있는 이른바 ‘뉴스페이스(NewSpace)’에 적응하여, 자신의 국익 추구에 활용하려는 측면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와 그 이후 미국의 우주정책이 보이고 있는 변화는 미중경쟁과 민간 우주산업의 발달이라는 두 가지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미국의 새로운 우주정책은 이전 냉전기 및 탈냉전기 우주정책과 차별화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을 찾기 위해, 제2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전후한 미국의 우주정책을 분석하고, 그 변화의 궤적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변혁보다는 점진적 진화에 가깝게 변화해 온 미국 우주정책이, 중국의 부상과 이에 따른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영역의 우주역량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활용해 자국의 안보와 우주 분야 주도권을 재확립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미중경쟁이라는 국제적 환경과 ‘뉴스페이스’의 부상이라는 산업 영역에서의 변화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제3장 “중국의 우주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김지이)은 최근 공격적으로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우주공간에 대한 인식 및 우주개발의 역사적 배경과 전략을 살펴보았다.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빠른 발전을 바탕으로 중국이 궁극적으로 우주개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국의 우주기관, 우주백서, 민관협력, 우주제도 등을 중심으로 중국의 우주전략의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중국 국무원에서 5년 주기로 내놓는 『중국 항공우주 백서』와 중국의 군사전략이 담겨

있는 『국방백서』를 토대로 중국의 우주에 대한 구체적 추진 전략 및 제도를 알아보고 관련 변화 양상을 고찰했다. 또한 중국이 가진 우주공간 또는 우주 분야에 대한 인식을 ‘구성적 제도주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익·제도·관념의 각 차원별로 우주공간에 대한 중국의 인식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우주공간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우주공간의 군사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다.

제4장 ”러시아의 우주전략: 우주프로그램의 핵심 과제와 우주 분야 국제협력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알리나 쉬만스카)은 러시아 우주프로그램의 주요 개발 과제가 무엇이고, 다양한 우주 외교 이슈에 대해 러시아가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냉전 시대에 러시아는 우주 강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고 우주 능력을 보유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뒤처졌다. 러시아는 우주역량의 약화가 군사·경제·사회적 경쟁력은 물론 세계무대에서 강대국 이미지까지 훼손시키고 러시아의 국가전략 전반을 발전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이유로 새천년이 시작되면서 러시아 연방 정부는 산업과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우주 인프라의 개발 프로젝트 및 새로운 우주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주 외교 분야에 크게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러시아 외교는 우주 군사화, 우주 파편물 적극 제거, 각국의 우주 자주 국방권, 투명성과 신뢰구축조치 TCBM, 우주활동의 장기적 지속가능성^{LTS}, 달 탐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러시아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제5장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유럽연합: 우주공간의 전략·산업·규범을 중심으로“(한상현)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뿐만 아니라 한국, 호주, 인도와 같은 중견국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유럽연합의 우주전략을 살펴보았다.

다. 의존성을 낮추고 독립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유럽연합의 행태는 마치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강불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유럽 연합은 자체적인 위성항법, 지구관측 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를 군사안보의 영역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구관측 영역에서는 민간 분야가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을 반영한다. 산업적 측면에서 유럽연합은 유럽산 부품 이니셔티브나 비의존성 행동계획을 통해 유럽의 우주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차원의 투자를 통해 유럽의 우주산업 전반에 혁신이 도입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유럽 차원의 이익이 되는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기권 활동에 대한 행동규범도 역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주도하는 우주규범 구축 경쟁에 있어서 유럽만의 규범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내용적으로 투명성과 신뢰구축 조치를 중점으로 추진하는 행태는 교착 상태에 빠진 우주규범 경쟁을 돌파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유럽연합의 모든 시도들이 성공적인 전망을 낳는 것은 아니나 이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자 시도하는 한국에도 많은 함의를 준다.

제2부 ‘우주경쟁의 세계정치’는 우주 군사력과 우주군, 우주기술과 우주산업, 위성항법시스템, 우주 국제규범 등과 같은 우주경쟁 및 협력의 쟁점 주제들을 살펴보았다.

제6장 “글로벌 우주 군사력 경쟁과 우주군 창설”(이강규)이 다룬 쟁점 주제는 우주 군사력과 우주군이다. 우주를 둘러싼 각국의 경쟁이 최근 들어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영역뿐 아니라 군사부문에서도 두드러진다. 우주 관련 기술은 민군겸용의 이중용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군 중 어느 한 영역에서의 우위가 다른 영역에서의 우위로도 귀결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글로벌 우주경쟁을 하나의 틀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부족했다. 제6장은 이러한 공백을 ‘경쟁적 안행모형 Flying Geese Racing Model’을 고안하여 채워보았다. 정치경제의

‘안행모형’을 변형한 이 모형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우주능력과 발전양상이 차등적인 층위를 가진 기러기 떼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파악한다. 정치적 상징성, 경제적 잠재성, 군사적 활용성을 추구하는 이 기러기 떼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 군사적 이용, 우주의 무기화라는 공간을 이동한다. 또한, 기러기 떼의 유지와 비행은 시너지를 낳는 낙수효과보다는 경쟁의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다. 글로벌 우주경쟁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경쟁적 안행모형이 특히 두드러지는 분야가 우주군 창설이다. 각국은 우주군 창설과 관련하여 출산형, 독자형, 진화형, 접목형 등 크게 네 가지 유형을 보이고 있으며, 각 유형이 가지는 장단점은 글로벌 안행모형의 메커니즘과 더불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리의 우주발전의 방향성에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 “미중 복합 우주경쟁: 경제-안보 연계의 다면성”(이승주)은 과학기술, 군사, 민간 산업 등 우주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우주굴기에 초점을 맞추어 미중 우주경쟁의 복합적 성격을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2014년 우주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발표한 이래 중국의 민간 우주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중국 민간 우주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민군 융합, 기업 간 연합 등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요인들이 작용했다. 중국 우주산업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앙 정부와 성 정부 사이의 유기적 분업, 군사 부문과 상업 부문의 연계, 국영 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 등 다양한 협력적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중국이 우주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다차원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미국에게는 도전 요인이다. 미국의 수출 통제에 직면한 중국은 국내 시장은 물론 대외적으로 일대일로를 우주산업의 확장과 연계하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는 특히 일대일로 참여국들 사이에 디지털 연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일대일로 우주 정보 회랑과 디지털 실크로드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우주 협력을 위한 다자 프레임워크로서 APSCO Asia-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를 활용했다. 이처럼 미중 우주경쟁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제8장 “위성항법시스템의 국제경쟁과 국제협력”(안형준)의 쟁점 주제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인공위성의 전파 신호를 이용해 위치, 항법,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경제·사회·국방 전반에 활용되는 기반기술 시스템이자 국가 핵심 인프라다. 2000년대 전후 그동안 전 세계 유일하게 무료로 제공되던 미국의 GPS 신호에 대한 의존성에서 탈피하고 관련 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국제 위성항법 질서가 다극화되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양상이다. 최근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국가들의 증가에 따라 위성의 궤도와 주파수/신호라는 제한된 자원의 확보와 분배, 위성항법신호의 다중화에 따르는 신호 간섭 등에 대한 조정, 그리고 의도적인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 등 국제 분쟁이 늘고 있다. 위성항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궤도와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하고, 군용과 민간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기술에 대한 국가 간 제한이나 신호 간 간섭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외교적인 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성항법과 관련한 국제 경쟁은 다양한 국제 표준화 기구를 통한 다자협력, 그리고 국가 간 양자협력을 통해 통제 및 조정되고 있다. 위성항법 구축의 전제조건이 되는 위성 궤도와 주파수는 ITU 같은 국제기구의 표준화 규범에 의해 확보해야 하며, 유엔 ICG 같은 민간 기구 활동을 통해 회원국들의 사전 동의와 협의를 통해 대략 10여 년 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 조정 대상 국가와의 기술적인 협상만으로 관련 자원을 확보하고 동의와 지지를 단기간에 얻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기술적인 측면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신뢰 구축부터 협력까지 이어지는 ‘과학기술외교’의 다양하고 장기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제9장 “미래 우주 항법체계 경쟁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복합지정확의 시각”(알리나 쉬만스카)은 미국과 러시아에 초점을 맞추어 위성항법시스템의 사례를 분석했다. 위성항법시스템은 러시아가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야 중 하나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위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러시아 연방의 공식문서를 보면 러시아 국가안보와 사회경제적 안정성 측면에서 글로나스GLONASS 위성항법시스템이 지닌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9장은 다음과 같은 이슈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러시아의 관점에서 글로나스 시스템은 국가전략의 일선 도구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미국과의 위성항법 경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취하는 경쟁 방식을 탐구했다. 러시아에 있어서 위성항법시스템은 강대국의 국력과 위신의 회복 도구이며, 미국과 러시아의 위성항법 경쟁은 기술경쟁 프레임을 넘어서는 정치경쟁으로 우주·지상관제·사용자 분야 등 세 부문에 걸쳐 나타난다. 이처럼 러시아는 위성항법시스템 고도화 등 글로나스의 우주 부문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지상관제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동맹 정치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여 경쟁력을 얻기 위해 러시아는 국내 법제를 정비하여 글로나스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등 복합지정학의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제10장 “우주 국제규범의 세계정치: 우주경쟁의 제도화”(유준구)가 다룬 쟁점 주제는 우주 국제규범이다. 우주개발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우주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우주경제의 현실화 시기가 근접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우주 선진국들은 통신, 영상촬영, 위성항법시스템, 기상예보, 정찰·정보수집, 지휘 및 통제, 정밀추적 등 광범위한 민간 상용 및 군사 프로그램을 통해 우주기반 활동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렇듯 인류의 생활 전반이 우주와 필수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우주에서의 국가 간 안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핵심적 과제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우주공간에 적용되는 국제규범 및 국제법은 진영 간 대립으로 인해 여전히 시급한 현안에 있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우주안보 관련 국제규범 정립과

국제법 창설 논의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요 우주강국들은 최근 수년간 대외적으로는 우주의 무기화·전장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위성 공격 미사일, 레이저 발사 무기, 우주로봇, 주파수 교란, 사이버 위협 등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여 전략화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우주안보의 제도화 과제는 진영 및 국가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여러 난제가 존재한다. 이는 기존 우주안보 레짐이 변화하는 우주안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각국의 우주경쟁은 가속화하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미래의 제도화 이슈는 기존 우주안보 레짐의 분절·분화과정을 거쳐 새로운 우주안보 거버넌스 구축 논의로 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2019년 여름 시작한 공부 모임에서부터 새로운 어젠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한 이승주, 유준구 두 분 교수께 감사드린다. 대학원 팀의 최정훈, 김지이, 알리나 쉬만스카, 한상현과 이 팀을 총괄한 양종민 박사도 고맙다. 2020년 7월 세미나에 새로이 참가해 준 안형준, 이강규 두 분 박사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에 담긴 초고들은 2020년 8월 20일(목)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비대면 회의)에서 발표되었는데, 당시 사회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직함과 존칭 생략, 가나다 순)께도 감사를 전한다. 고봉준(충남대), 손한별(국방대), 양종민(중앙대), 엄정식(공사), 이원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관행(공사), 주정민(항우연), 표광민(중앙대). 이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교정과 편집 총괄을 맡아준 한상현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잊을 수 없다. 끝으로 출판을 맡아주신 한울엠플러스(주)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1년 4월 2일

서울대학교 미래전략연구센터장

김상배